

## 임성재 “꿈의 무대... 우즈와 겨룬다면 영광”

대륙간 골프대항전 ‘프레지던츠컵’ 첫 출전  
“하던 대로 한다면 승산도 있다” 자신감 보여

“출전을 꿈꿨던 대회다. 기회가 된다면 타이거 우즈와도 겨룰 기회가 있다면 영광이다.”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12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대륙간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 인터내셔널 팀의 일원으로 출전하는 임성재(21)가 출사표를 냈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데뷔한 임성재는 우승은 없지만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까지 살아남은 30명에 포함됐고 신인왕을 꺾자 인터내셔널 팀 단장 아니 엘스(남아공)의 선택을 받았다.

대회를 하루 앞둔 11일 임성재는 “2015년에 인천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을 관전하고, 인젠가는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출전하게 되어서 기쁘고 설렌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처음 겪어보는 큰 대회

라 부담감도 있지만 기대도 크다”면서 “팀이 이기는데 일조하려는 마음 뿐”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안)병훈 형은 애초에 단장 추천으로 뽑힐 줄 알았다”는 임성재는 “병훈 형과도 포섬이나 포볼 경기에서 호흡을 맞춰 승점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사흘 동안 부단장 최경주(49)와 코스를 돌아본 임성재는 상당한 자신감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코스를 돌아보니 누가 더 많이 그린에 올리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 같다”면서 “매치 플레이 방식 경기 경험은 많지 않지만, 자신은 있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오늘 애덤 해드윈(캐나다)과 연승 라운드를 하면서 내기를 했는데 내가 2홀 차로 이겼다”고 살짝 공개했다.



최경주 부단장(오른쪽)이 11일 (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열린 2019 프레지던츠컵 연습라운드에서 임성재에게 3번홀 공략지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한 번도 타이거 우즈(미국)와 동반 라운드를 해보지 않았다는 임성재는 “만약 이 대회에서 우즈와 대결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포섬과 포볼 경기에서

잘한다면 마지막 날 싱글 매치에서 우즈의 상대로 낙점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맛볼게 되면 내가 하던 대로 한다면, 이 코스에서라면 승산도 있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 CJ컵 나인브릿지 ‘최고의 운영상’ 선정

제주도 3년째 후원 중

제주도가 3년간 후원하고 있는 ‘더 CJ컵 나인브릿지 골프대회’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선정한 2018-19 시즌 ‘최고의 온 사이트 스태이징(On site Staging) 대회’로 지난달 20일 선정됐다.

온 사이트 스태이징은 원활한 대회운영과 갤러리 서비스, 대회 구조물·장치물, 선수 케어 서비스, 갤러리 이동 동선의 명확성 등 대회 준비와 운영면에서 가장 우수한 대회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대회에서 제주도는 4만7000명의 갤러리 방문에 대비해 교통 흐름, 갤러리 주차장 통제, 의료 및 소방지원 등에 나섰고, 세계적인 골프선수인 필 미켈슨과 최경주 등을 대동해 제주의 녹차와 조량말을 주제로 홍보영상을 촬영, 전세계 220개국에 송출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CJ컵 나인브릿지 골프대회가 제주의 글로벌 스포츠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차세대 피겨 퀸’ 찾아라... 대표 1차 선발전

유영·임은수·김예림 등 국내 정상 선수 총출동

피겨스케이팅 국내 1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13일부터 15일까지 경상남도 김해 문화재단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열리는 ‘2019 KB금융 전국남녀 회장배 랭킹대회 겸 차기 시즌 피겨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엔 ‘포스트 김연아’를 꿈꾸는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불과 수년 전까지 김연아(은퇴) 독주 체제였던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은 최근 수준급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유영(과천중·사진)이다. 유영은 올 시즌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세 바퀴 반의 고난도 점프 ‘트리플 악셀’을 실전 대회에서 클린 처리하며 독보적인 기술펠을 뽐냈다.

그는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이었던 10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인 217.49점을 받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예브게니야 페드베데바를 제치고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시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국제대회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유영과 트로이카 3총사를 꾸렸던 임은수(신원고)와 김예림(수리고)도 출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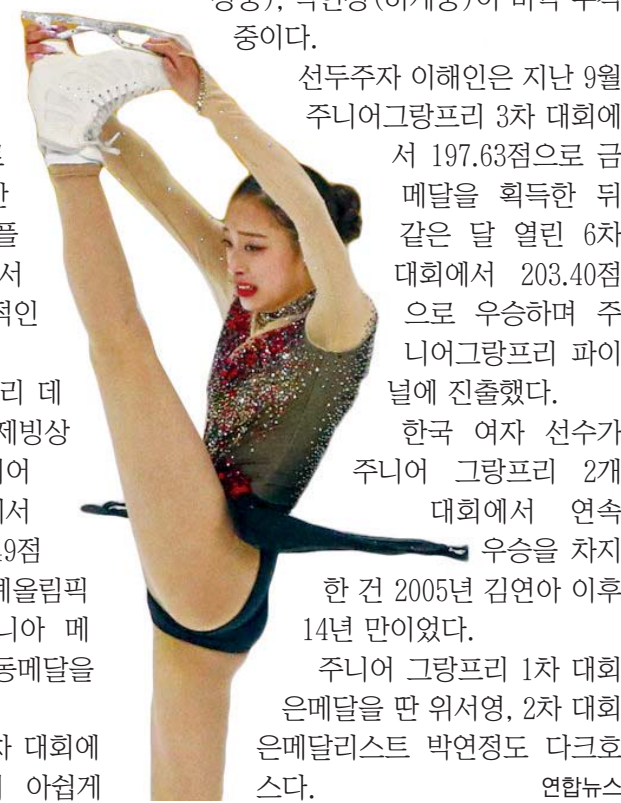
임은수는 2018-2019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김연아 이후 9년 만에 시상대 위에 올랐지만, 2019-2020시즌엔 기대 수준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5위, 6차 대회에서 7위를 기록했다. 김예림도 올 시즌엔 다소 주춤했다. 세 선수의 뒤는 ‘차세대 트로이카 3총사’ 이해인(한강중), 위서영(도장중), 박연정(하계중)이 바짝 추격 중이다.

선두주자 이해인은 지난 9월 주니어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197.63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같은 달 열린 6차 대회에서 203.40점으로 우승하며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건 2005년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였다.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은메달을 딴 위서영, 2차 대회 은메달리스트 박연정도 다크호



2019 한국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배구 삼성화재 박철우, 농구 전주 KCC 이정현, 특별상 류현진, 야구 KIA 타이거즈 양현중, 축구 울산 현대 김보경(아버지 대리 수상), 골프 문경준(아내 대리 수상), 배구 흥국생명 이재영, 골프 최해진, 농구 삼성생명 김한별. 연합뉴스

KIA 양현중, 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상 수상

10개 구단 총 50명의 투표인단 중 1위(5표), 2위(3표), 9표, 3위(1표) 7표 등 총 159표를 받아 NC 다이노스 양의지(128표)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미국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한 류현진(자유계약선수)은 특별상을 받았다.

프로축구는 김보경(울산 현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자프로농구는 총 137점을 기록한 이정현(전주 KCC)이, 여자프로농구는 김한별(삼성생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남자프로배구는 박철우(삼성화재)가 여자프로배구는 이재영(흥국생명)이 수상했다.

남자프로골프는 문경준(휴섹), 여자프로골프는 최해진(롯데)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투어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TOUR

**예약폭발  
마감임박!**

**군산 시간여행** 1박 2일

1/18, 1/31 / 2/14

**286,000원**

---

**맛 따라 길 따라 계절밥상 국내여행** 2박 3일

2/7 ☞

**429,000원 ~**

---

**남해안 봄꽃여행** 2박 3일

3/21 ☞ 산수유·매화축제

**420,000원**

**마카오 임금님온천여행** 2박 4일

699,000원

★6명 이상 출발가능

---

**방콕/파타야** 3박 5일

출발일: 매일출발

**729,000원 ~**

---

**남해안 봄꽃여행** 2박 3일

4/10 ☞ 남해안 봄꽃 축제

**450,000원**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 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2/28(토)대기 2/19(수)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항 선착순 **899,000원**

★특식3회(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선마사지 1시간(탑별도), 베트남 전통노모자 증정, 스트라카 포함

**브루나이공화국** 3박 5일

제주직항 12/21(1인) 12/25(수) **1,590,000원**

---

**대만** 3박 4일

출발일: 여행사 문의(탑별도)

**699,000원 ~**

---

**말레이시아/싱기포/말라카 쿠알라룸푸/말라카/젠팅**

999,000원 ~ 799,000원 ~

★4명 이상 출발가능 ★매주 2회출발

T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식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해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가담-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팁/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